

# 韓불교 ‘자비의 꽃’ 캄보디아서 피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티 지역에서 2015파라미타 국제교류협력 '캄보디아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국제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8월 4일 클링하이슬 문화체험활동 중 연꽃뿔지를 만들고 나서 학생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있는 모습.



클링하이슬 봉사활동 후 한국의 봉사단과 미얀마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우물 준공 표지판 앞에 서있는 봉사단 스님들.



의료봉사 단원이 어린아이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 2015파라미타국제봉사단, 8월 2~9일 국제봉사활동

캄보디아 씨엠티 시내서 2시간여 차를 타고 도착한 클링하이슬, 학교 입구부터 2백여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줄지어 서있었다. 한국에서 도착한 파라미타국제봉사단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봉사단 한명 한명에게 연꽃뿔발을 건네는 아이들 얼굴에는 설렘과 수줍음이 가득했다.

“파라미타국제봉사단”(단장 정여, 이하 봉사단)은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티 지역에서 2015파라미타 국제교류협력 ‘캄보디아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국제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일산병원 의료진, 국제포교사회 봉사단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8박 9일간의 의료·교육환경개선·문화체험·현지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첫째날인 2일, 스테이스남 지역의 ‘바람석사 클링하이슬’에서 펼쳐진 한국문화체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복을 입은 채로 사진을 찍고 즉석 인화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자 행여 사진이 구겨질까 새로 받은 책가방에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이 순수해보였다.

“클링하이슬”은 오래전부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실과 책상 등이 부족해 아이들은 밖에서 수업 받아

야 했다. 교복도 낡고 오래돼 위생 문제도 심각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난 봉사단에게 아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봉사단은 봉사기간 동안 20명 규모의 교실 1채를 직접 지어주었다. 이에 앞서 봉사단은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기념품은 송묵 스님의 원력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한마음선원 정각사, 동국대일산병원 법당 등 한국의 불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

### 동국대병원 등에서 20여명 참가 의료·문화·교육 다방면 지원

아 마련한 것이었다. 교복, 책가방, 신발, 자전거, 치약, 칫솔, 과자, 사탕 등 학용품과 생필품부터 아이들 간식거리까지 세세함이 돋보였다.

선물을 한 꾸러미 받아든 아이들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학교 6학년인 ‘쑤인’(여·12) 학생은 “자전거 선물이 가장 좋다”며 “곧 있으면 입학하는 중학교까지 도보로 1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자전거로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절약된 시간만큼 열심히 공부해 보답할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쑤안(여·14) 학생은 “깨끗한 새 교복으

로 같이입고 싶다. 웬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 무료건강검진이 진행됐다. 클링하이슬 인근 클링하이슬은 병원이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적인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 대부분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학교가 마을에서 제법 떨어져 있었지만 주민들의 진료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졌다. 김광기 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의료진들은 주어진 봉사시간동안 1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

### 씨엠티·스레이스남·푸억 지역 8박9일 순회하며 문화체험 및 봉사

민들은 혈압과 체온 체크 후 증상에 따라 양방과 한방 검진을 함께 받았다.

김광기 교수는 “진료를 본 4세 아이고 열이 1달 넘게 지속됐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 아팠다.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해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병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상황이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라도 후속 치료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문제가 큰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봉사단은 4일차인 8월 5일 씨엠티에서 40분거리에 위치한 푸억 지역 르뵤아

마을을 방문해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에 설립한 BWC아동센터(Beautiful World of Cambodia)의 봉사자들도 함께했다. 이 마을서 수차례 자원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BWC아동센터 봉사자들은 봉사단의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르뵤아 마을 봉사에서는 한방치료도 진행됐다. 마을회관 한쪽에 자리한 간이한방 치료소는 인산인해였다. 처음 받아보는 침술에 마을주민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친절환 봉사단의 대응에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치료를 진행한 안팎 한방내과의는 “일회성 봉사에서 지속적인 봉사가 될 수 있는 한의학 해외봉사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검진에 이어 르뵤아 마을 아이들을 위한 문화 체험 한마당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바게트빵과 우유 등 간식나눔도 진행됐다. 아이들은 봉사단에게 감사인사인 ‘아꾼’을 잊지 않았다.

일일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빵을 건네던 법경 스님은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미소를 잃지 않고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중에는 잠시 소나기가 쏟아졌다. 소나기가 지나가고 이내 마을 하늘에는 무지개가 펴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지개 같은 희망이 느껴졌다.

씨엠티=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직업학교 건립도 추진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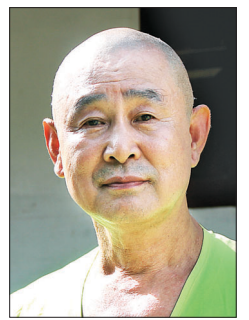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처님 사상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눔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라미타국제봉사단을 이끈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정여 스님(사진)은 현장에서 자비나눔을 강조했다. 정여 스님은 봉사활동 중 클링하이슬에 전기 및 수도 시설도 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여 스님은 “지난해 봉사활동을 진행한 라오스 학교의 환경보다 이번 클링하이슬의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며 “아이들이 아예 밖에서 수업하는 것은 처음 본다. 교실을 비롯해 실질적인 교육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봉사단은 체류기간 중 교실보수를 진행해 8월 4일 20명 규모의 교실을 기공하고 현판식도 진행했다.

교실보수에서 직접 벽돌을 쌓아올리는 등 남다른 애착을 보인 정여 스님은 “아이들이 조금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소망”이라며 “캄보디아 교육 및 경제 발전에도 이바



지하는 직업학교를 건립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여 스님은 스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봉사기간

내내 피약벌 아래서 함께 활동한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하는 남방불교 스님들과 달리 한국의 스님들이 대중들과 함께 따돌리며 봉사하는 모습에 많은 지역민들이 놀라면서도 좋아한다”며 “스님들이 권위를 버리고 대중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때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여 스님은 “세상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어린이들 만큼은 오늘의 이 순수함을 간직하길 바란다”며 “이 아이들이 성장해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대의 승만보살로, 신사임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란 보살의 수목화같은 수행기

#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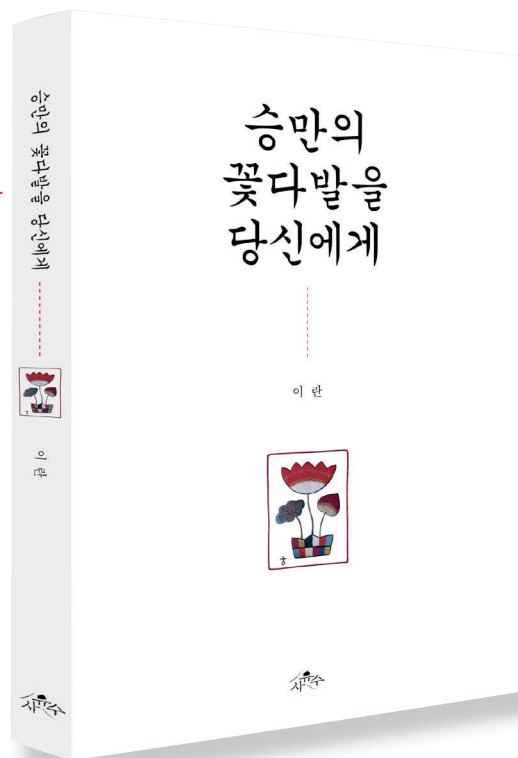
은행동장은 없어도 공덕동장을 채우고 살면 행복하다  
고난은 방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신호  
승만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란 부인은 여여인을 설립하여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사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 이 헌권의 책 속에는 교계의 향기로운 난초(蘭) 역할을 특별히 하며 재가 불자의 훌륭한 모델로 존중받는 이란 보살의 열정과 헌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 고영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많은 이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셨다. 어머니의 소리없이 자애로운 교육방식과 철학은 교육자인 나에게 어떠한 이로서보다 귀감이 되는 교과서였다. 어머니처럼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고 싶다.

— 정재성 (서울고대부속 초등학교 교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복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부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남편부처, 아들부처, 이웃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껏 어디를 가든 다녀간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고 살아왔듯 앞으로도 그리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여여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공부하는 벗들의 모임이다. 공부를 하려면 청정한 도량, 훌륭한 스승, 신심 깊은 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바탕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심깊은 도반들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지속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승만〉은 경전 중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한 경전이다. 승만부인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재가불자의 본보기로서 많은 여성불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여여회 회원들과 108과 함께 경을 공부하면서 승만보살의 서원과 실천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자칭 살림 전문가다. 살림이 명상이고 예술이었다. 노동으로 생각하면 노동이지만 수행을 통해 본성을 알리고 노력한 시간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남편과 아이들이 진짜 나의 신장님이라 생각한다.

— 본문 가운데서

이란 修德 著 | 값 17,000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9-4 이가빌딩 104호 대표전화 02-336-8910

